

SCFF영화제 수상 소감

2011년 서울기독교영화제 케리그마 부문 관객상 수상

공주빈



영화제 출품을 준비하며

올해 9회째를 맞는 서울기독교영화제의 단편 경선부문은 두 가지로 나뉜다. 주제나 소재의 제한이 없는 '코이노니아'와 일정한 주제(성경 본문)에 맞춰 만드는 '케리그마'가 그것이다. 우리가 출품한 부문은 케리그마로, 묵회 및 선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것이다. 올해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강도만난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본문이다. 주제를 받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교회에 다니거나 다녔던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회 안팎의 모습을 영상에 담자고 정했다. 영화는 여자 주인공 유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둘러보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집에 돌아와서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한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얼마 전에 만난 교회 친구들이 찾아와 다정하게 축하메시지를 건네고,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대화 속에 불이 꺼지고 생일축하 노래와 함께 촛불에 비친 유리의 얼굴이 보인다. 하지만 왜인지 그녀

의 표정은 밝지 않다. 노래가 끝나고, 불이 켜진 방에는 유리 혼자만이 남아 있다. 쓸쓸한 그녀의 모습 뒤로 초대에 오지 못한 친구들의 사연이 흐르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건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공동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나의 일, 나의 성적, 나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고, 누군가를 도울 때도 책임이나 의무감으로 힘겹게 하진 않았는지... 때로는 주인공 유리처럼 내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따랐지만 강도 만난 자를 위해 행동하기를 주저했던 제사장과 레위사람처럼 말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질책하면서도 우리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셨을 거 같다. 영상을 보는 이들이 각자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서의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대가 없는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만났던 것은 참 감사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동시에 부족하나마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쉬움, 그러나 소중한 경험들

4분 내외의 영상을 완성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부분은 시나리오였다. 어떤 메시지를 영상에 담을 것인지, 누구의 시선, 어떤 장르와 분위기로 이야기를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완성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가 부족해 우왕좌왕 해매기도 했다. 아이디어나 장면 위주로 이야기를 채워 나가다보니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았다. 몇 번을 갈고엎은 후에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 이야기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좀 더 공부할걸,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렇지만 하나의 성경 본문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볼 수 있었던 점은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또한 김남국 목사님(전 동역회 연구원)과 함께 본문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해석하면서 진리가 주는 깨달음과 격려, 위로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컷과 앵글,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해 촬영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기독미디어아카데미에서 실습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사실 현장에서는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을 더 많이 찍었지만, 준

비해 든 리스트 덕분에 맥락을 기억하며 (그나마^^;) 찍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시나리오만큼 함께 소통하며 작업했던 부분은 편집이었다. 우리 작품의 편집을 맡은 권순기 형제는 그만의 독특한 발상과 섬세함을 작품에 녹여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 동료들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덧붙여 가며 완성본을 만들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편집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동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라면 생각내지 못했을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편집과 협력의 묘미를 경험할 수 있었다.

첫모임에서부터 영화제까지.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시나리오의 완성도, 영화적 접근, 연기자와의 소통, 제작과정에서의 소소한 사건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함께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 자발적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또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 좋은 친구를 사귀고 대가 없이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우리 모임을 기억하고 기도해주셨던 분들께 늦게나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수상작은 기독미디어아카데미 홈페이지(cmca.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빈 기독미디어아카데미 중기과정 4기 졸업생,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이며 교회에서 성가대와 교사로 섬기기도 하였고 한국기독학생회(NF)에서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에코파티 메이리 자원활동, 아름다운가게 공정무역사업부 인턴을 거쳐 현재 졸업을 앞두고 전공과 비전을 살릴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